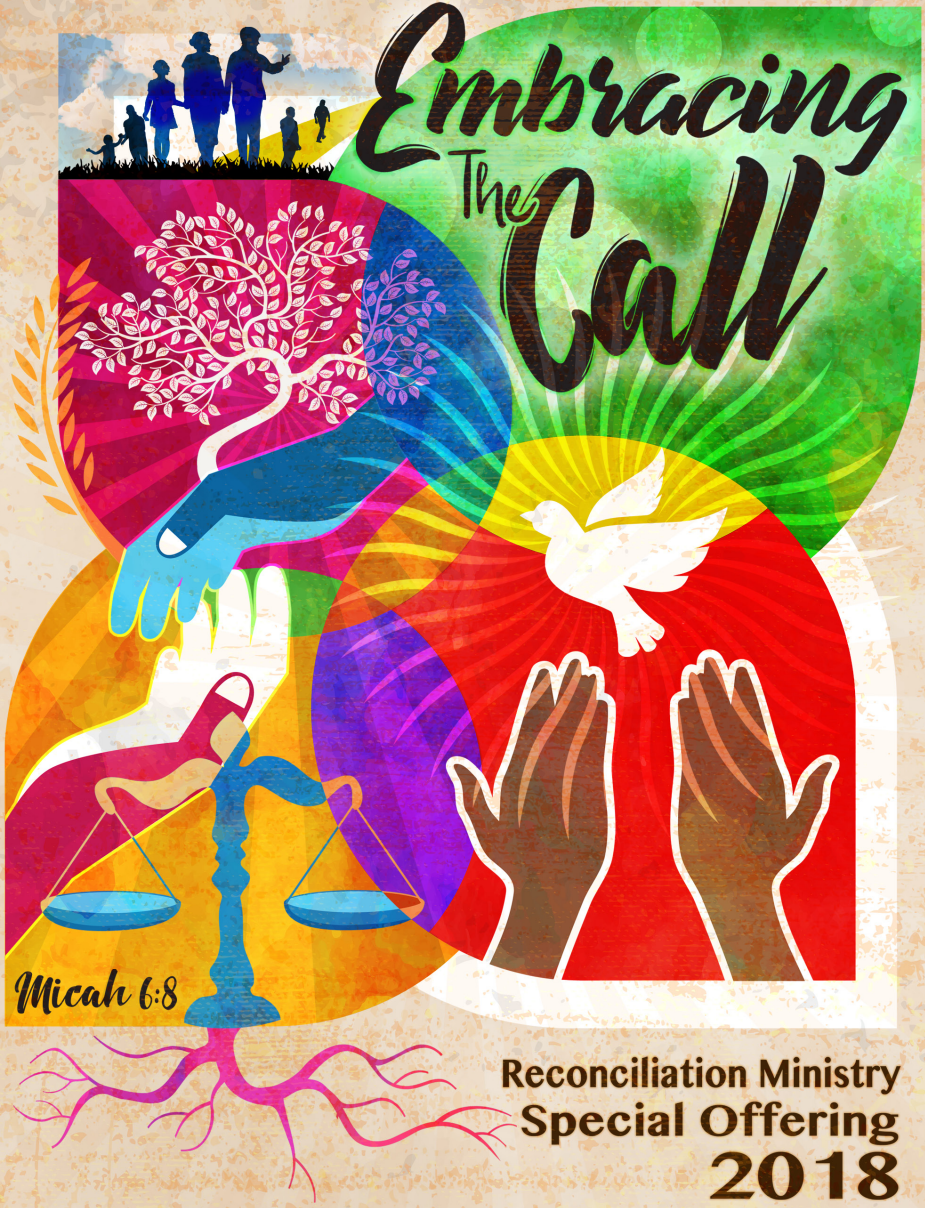
Embracing The Call



Reconciliation Ministry Special Offering 2018

September 30th & October 7th

www.reconciliationministry.org

소명에 응답하는 삶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집회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의장이 참여자들로부터 크게 비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참여자들의 지지와 동의 없이 사안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임 참여자들은 실망했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저 또한 염려가 되어, 숨을 크게 쉬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 이후에 천천히 모임의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신뢰, 확신, 공정성과 같은 주제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화해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 아닌가?" 마치 염려와 긴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가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미가 선지자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열정과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발시키셨습니다.

제가 모임 중에 던졌던 물음을 이렇게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 기분, 염려 그리고 더 나아가 영혼의 죄악을 묵상하며, "하나님, 당신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보길 원합니다.

작년 특별헌금을 통해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특별 헌금에 참여하시어 정의, 사랑, 자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화해사역 (Reconciliation Ministry)을 향한 여러분의 기부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들은 "한 주머니의 차(One Bag of Tea)"라는 대화의 장을 열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신앙에 기반한 능동적 참여 운동을 이끌고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묶어 주는 치유와 사랑, 정의의 사역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화해사역 (Reconciliation Ministry) 후원에 동참하시겠습니까?